

이승준 02) 2009-7088  
leesj@leading.co.kr

26일 뉴욕증시는 부진한 거시경제지표들에도 불구하고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 의장을 인선하는 등 경제회복에 주력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호재로 작용하며 반등에 성공.

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47.14p(2.91%) 상승한 8,726.61에 장을 마감하며 사흘연속 상승세를 기록.

다우지수의 30종목 중 28 종목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지원책에 대한 기대로 GM이 34.3%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. 포드 또한 28.3% 상승하였고, 유가 급등으로 쉘브론과 엑손모빌은 각각 3.12%, 2.42% 상승 마감.

S&P500 지수는 30.29p(3.53%) 오른 887.68, 나스닥 지수는 67.37p(4.60%) 오른 1,532.10을 기록.

이날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들의 발표로 미국 경기후퇴의 심각함을 재차 확인하며 하락 출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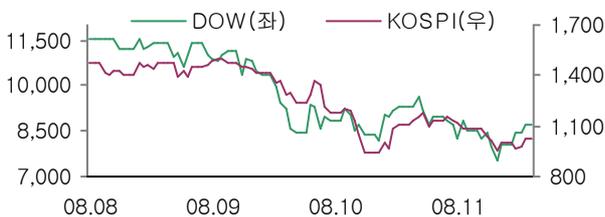
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개인소비지출이 1% 감소하였다고 발표. 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7년내 최대 감소폭. 10월 내구재 수주는 6.2% 감소하며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.

22일 마감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2만4,000명 줄어든 52만9,000명을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며 경기후퇴의 심각성을 나타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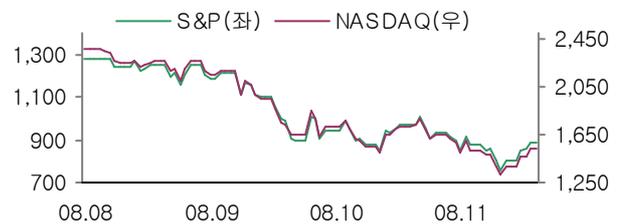
그러나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 의장이 차기 행정부에 신설되는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(ERAB) 의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에 증시는 반등에 성공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증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726.61	2.91	9.12	5.36	6.74	-23.54	-32.66
S&P(좌)	887.68	3.53	10.05	4.15	4.57	-30.19	-37.85
NASDAQ(우)	1,532.10	4.60	10.51	2.19	1.74	-35.13	-40.63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\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\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\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